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 행 인: 이 중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부터 다양한 성탄예배와 행사

■ 성탄축하찬양예배

21일(주일) 오후 5시

성탄축하찬양예배를 임마누엘 찬양대주관으로 21일(주일) 찬양 예배시간에 드린다. 이 찬양예배는 우리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 성탄축하전야예배

24일(수) 오후 7시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성탄절 이

브를 찬양과 율동, 성시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24일 밤 7시 온 가족과 함께 1층 예배실에서 찬양 가득한 성탄절 전야를 보낼 수 있다.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I부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 성탄절 새벽예배

25일(목) 오전 5시

25일(목) 새벽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탄절 새벽예배는 평소와는 달리 5시에 드리게 된다.

■ 성탄절 예배

25일(목) 오전 9, 11시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가족 예배로 두 차례에 걸쳐 드린다.

성탄절 I·II예배 시간에는 감사헌금도 드린다. 구제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우리 교회 내외 서초구 주민 중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웃을 위한

성탄성가발표회

서초구 내의 소년소녀 가정과 무의탁 노인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22일(월) 오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제 1부 예배에 이어 제 2부는 성가곡 발표회로 진행된다. 우리교회에서는 이 음악회에 4중창단이 두 곡의 성가로 출연한다.

우리 이웃을 위한 이 음악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오늘 1998년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오늘 I·II·III부 예배 시 1998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갖는다. 오늘 I부 예배 시에는 고등부·대학부·청년부·새가족부 교사, II부 예배엔 유년부·초등부·중등부·장년부·사랑부 교사, III부 예배엔 유아부·유치부·소망부 교사가 각각 임명을 받게 된다. 오늘 임명을 받는 교사는 12개 교회학교의 총 290명이다.

오늘 임명식을 마친 교사들은 이달 말까지 교회학교별로 총회를 갖고 내년도 각부 교회학교의 부흥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협

의를 하게 된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체제는 갓 태어난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성도가 자기 연령에 해당하는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돼 있다. 또한 새가족의 교회적응과 신앙성숙을 돕는 새가족부,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도 있다.

참고로 우리교회 교회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이념(천국시민 생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이념으

로 한다.

■ 교육목적(천국시민 양성)

① 거듭난 인간 ② 성숙한 신자 ③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 교육목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

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성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인간, 가정, 이웃, 역사와 우주, 사회와 국가, 직업, 재물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돌리기 위한 것이다.

1998년도 교육위원회

- 지도: 박귀환 목사 · 위원장: 최종시 장로
- 서기: 오광환 집사 · 회 계: 김정희 권사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유 아 부	이영희 집사	성준경 장로	이계홍 집사, 이부자 권사
유 치 부	신미숙 전도사	김영준 장로	이관규 집사, 이해순 권사
유 년 부	이상진 목사	이영기 장로	노송성 집사, 최정자 권사
초 등 부	이상득 목사	최종시 장로	우지원 집사, 유명석 권사
중 등 부	민영수 목사	나희주 장로	박두호 집사, 김예환 권사
고 등 부	김정현 목사	박철훈 장로	오광환 집사, 이은희 권사
대 학 부	박귀환 목사	정병무 장로	이환형 집사, 김정희 권사
청 년 부	김정현 목사(이만열 전도사)	노문환 장로	이변생 집사, 윤갑숙 권사
장 년 부	김영한 목사	김광신 장로	하영수 집사, 이정자 권사
소 망 부	우심화 목사	이남호 장로	김일용 집사, 전행자 권사
사 랑 부	김성숙 전도사	김태기 장로	윤찬오 집사, 김숙자 권사
새 가족부	이순환 목사	오정수 장로	김세제 집사, 최금자 권사

탁아부를 유아부로 개칭

교회학교 탁아부의 명칭이 유아부로 변경된다.

갓 태어난 영아로부터 만 36개월된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부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유아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배우는 부서이다.

이번에 개칭하게 된 것은 그간 탁아부라는 명칭이 마치 아이를 맡기는 곳 같은 인상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유아부의 집회시간은 제 I부 주일 오전 9시, 제 II부는 주일 오전 11시이다.

☆☆☆☆☆ '97 성탄절 메시지 ☆☆☆☆☆



이중운 목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어두움에 빛이 왔으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공간은 온갖 불안, 회의, 고독 그리고 낭패와 좌절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야말로 평화, 기쁨, 희망이 소멸되고 빛이 사라진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삶에 대한 감사의 노래는 거의 찾을 수 없고 환희의 노래도 쉼터와 베토벤 이후엔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한 빛이 찾아왔으니 곧 만백성을 구속하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의 탄생은 만민에 대한 희소식이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 기적적 사건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 하르나크는 "소크라테스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류는 두고 두고 상기해도 부족하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인류는 영원히 그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인류의 운명이 전환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둡고 괴로운 밤의 역사만 계속되어 오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메시야가 오실 것을 고대했다. 로마 황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예수님은 누을 곳조차 없어 시골집 마굿간에 태어나셨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난 메시야는 이처럼 탄생부터 소외된 인간의 표본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오실 메시야였기 때문에 그의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라 했다. 어거스틴은 겸손하게 "인간들은 이 날에 태양을 섬길 것이 아니라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옴으로 인해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에 단절의 벽이 깨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멸시, 억압, 학대, 가난,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삶의 좌절과 낭패를 맛보고 소외된 채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생존 경쟁에서 이미 낙오된 이들,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다.
예수님은 이들의 냉혹한 운명을
변화시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기쁜 성탄절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의 고뇌를 씹으면서 공허감, 고독감, 공포감까지 갖고 불안에 떠는 이들이 있다. IMF한과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두움의 힘이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무서움의 상황에서 "무서워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야가 나셨다"고 전하는 천사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져야 한다.

이 세상 사람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무서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들의 냉혹한 운명을 놀랍게 변화시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이미 세계사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구세주다. 영원히 살아계실 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그때나 지금도 우리 중에 계셔서 자유와 기쁨을 빼앗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비통해 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엔 평화가 되셨다. 그것은 아름다운 꿈 속의 평화도 아니고 일시적인 한정적인 평화도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 고차원적 평화로서 이 세상 누구도 감히 빼앗지 못하

는 사회와 구속의 은총이 주는 평화다.

이 평화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바로 여기에 오신다. 내 생명이 끝나는 시간, "주여, 저는 떠날지라도 당신만은 저를 떠나지 아니할 것임으로 나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어두운 상황에서 자신의 탈선된 시야를 본래적 중심으로 환원시켜 아기 예수께로 집중시키도록 하자.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은 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계신 그분의 신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민족도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살고 참 평화도 은혜도 기쁨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자.

✧ 순례자 컬럼 ✧

구현되어야 할 성탄정신

예수님의 성탄은 성자의 비강이요 격하며 희생이고 대속적 죽음을 말한다. 이같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난을 핑계로 구제받기만을 바라거나 높은 자리를 빙자하여 선물만을 기다리거나 대목이라는 구실로 매장고만 올리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성탄정신을 더럽히는 자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남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과 희생과 대속의 삶을 체현해야 한다. 인간으로 오시어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파하시며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정신이 이 계절에 우리 사회뿐 아니라 북녘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에게 들어 보는 새해 소원

1997년도 한 해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고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세밀까지 달려 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돌이켜보니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성탄절기와 연말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재림의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99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교회가 더욱 평안하고 하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며 목사님을 중심하여 한 뜻으로 충성하는 당회원들의 모범을 따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가득하길 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새 예배당 건축은 우리에게 사명감과 동시에 축복임을 모두가 알고 이 일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주변의 요인이 여의치 못하나 이럴 때 믿음이 요구되고 진

정한 헌신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아

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성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여 우환질고가 없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 백성들이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고임을 깨달아 배움을 입는 심정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나겠느냐”던 6.25의 참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 있었

듯이 이전보다 더 찬란한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이 제 스스로를 향한 첫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향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짓는 일이 1998년도에는 눈에 보이게 진전될 터인데 모쪼록 새 예배당이 기도로 세워

져 가도록 지치지 않는 견고한 무릎을 갖게 되는 것이 제 두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걸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우리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맑은 영을 허락하시사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세번째 소원입니다. 또 이러한 강건함을 우리 제 1권사회의 나이 많은 권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젊어서 못다한 충성, 후손을 위한 봉사를 기도로나마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들의 생명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조국이 다시 견고해지는 것과 새 예배당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화평”

임광식 장로
(1교구, 건축위원장)

“세 가지 강건”

최완 권사
(4교구, 제 1권사회 부회장)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및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는 오는 1월 4일(주일)에 13세 이상 미혼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3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이날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서약자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순결교육과 서약식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오후 10시부터 송구영신예배 시작 전인 11시 30분까지 서약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를 갖게 된다.

한편 순결서약식 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순결서약식의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부, 교육부, 홍보부, 봉사부, 출판부, 재정부 등 6개 부서의 위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청지기 수련회 일 정

구분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원	교구일꾼	장로 안수집사	청지기 전원
일자	5일(월)	6일(화)	7일(수)	8일(목)	9일(금)	10일(토)	11일(주일)
5:30	새벽기도회						(찬양예배)
5:50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예배위원의 자세	찬양과 예배	효과적인 전도회 운영	교구일꾼의 역할	중직자의 사명과 자세	청지기 헌신예배 및 제직수련회
6:30	박귀환 목사	이순환 목사	민영수 목사	김정현 목사	이순환 목사	이성득 목사	이종윤 목사

청지기수련회 내달 5일부터

'98 청지기수련회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라는 주제로 1월 5일(월)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청지기수련회의 대상은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

회 임원, 교구일꾼, 장로 및 안수집사 순이다.

한편 마지막 날인 11일(주일) 찬양예배는 제직수련회를 겸한 청지기 헌신예배로 드리므로 청지기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1월 1일 0시 송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1998년 1월1일 0시에 교회당에서 드린다.

예배는 0시 정각에 타종과 함께 소등한 상태로 시작한다.

교우들은 1997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즉 예배시작 30분 전에 미리 착석해 1997년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로 오는 날들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동명이인(同名異人) 성도 고유번호 정정 및 추가

지난 주 발표한 동명이인 성도에게 부여된 고유번호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름·번호	교적번호	다락방
김영주 1	0081	역삼 2
김영주 2	1305	중곡 2
김영주 3	1554	명일
서창원 1	1227	둔촌성내
서창원 2	1986	구리
김진숙 1	0113	성수
김진숙 2	1373	분당 4
김진희 1	1682	논현 13
김진희 2	1800	영동 2

1998년도 예배위원회

지도 이순환 목사 위원장 박철훈 장로

서기 오형철 집사(정) 김규태 집사(부)

회계 김성준 집사(정) 이안순 집사(부)

담당	부장	음향 조명	강단	헌금 책임	안내		
					총 현	남	여
주일 I 부	김성준	서경숙	김혜영	김혜련	1 현	김성준, 오형철 홍일성	김선영, 이명아, 김혜영
주일 II 부	김중근	권오현	김미자	남미희	1 2 현	김중근, 최창규 구동철, 이종호	김미자, 주임옥, 최승옥 서희자, 이안순, 이순영 한정아
주일 III 부	김규태	권오철	강인희	최미아	1 현	김규태, 김시환 김시환	강인희
찬양예배 수요 I 부	김시환	권오철	이안순		1	김시환	김상옥, 이안순, 김수호
수요 II 부	이안순	서경숙	이안순		1		이안순, 윤숙지, 나기태
새벽기도회	김규태	이계홍	금용숙		1	김규태	강인희, 금용숙
금요기도회	김경아(주일), 한정아, 박성현, 김은숙(월-토) 이점숙, 원복순, 김영주						
성례부	우선자	김경희, 김계순, 김인순, 박경희, 윤문자, 이경희 이남복, 이부자, 이점숙, 최무순, 최영순					

우리교회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회)



1998년도 전도위원회

지도 김정현 목사 위원장 김영준 장로

서기 김인수 집사

회계 원복순 권사

남선교회 임원

부서	직책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요한	회장 부회장	황재목 김영구	김금준 최차순	김원웅 김혜연	정세형 안인호	이종호 이영훈	성춘모 박태규
베드로	회장 부회장	최형렬 최광성	손병석 우지원	차광만 선우중수	이태원 조정식	윤성남 김관영	이승우 임상헌
바울	회장 부회장	유중관 오유식	조웅식 암훈규	이태상 장양일	홍성주 이상호	유신 서준식	김관홍 유명종
모세	회장 부회장			이상운 이덕빈			

여전도회 임원

부서	직책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마리아	회장 부회장	서희자 조숙경	문형미 임혜옥	김정란 김규희	우정희 제오복	최승옥 금미선	유숙인 조선영
루디아	회장 부회장	남태순 이영자	정현숙 오영숙	김경옥 박창희	박윤희 서필영	이순영 김명화	김혜영 안분선
에스더	회장 부회장	이은희 이혜순	이용자 정종순	이정자 손재경	허정자 함은희	최정자 전용순	김정희 이용자
한나	회장 부회장		유복달 김연옥			박종민 백영희	

동정

- ◆ 당회는 타교회에서 이명해 온 전수자·서옥덕 권사를 무임권사로 임명했다.
- ◆ 오정수 장로(1교구, 재정위원장)와 이영기 장로(7교구, 출판위원장)는 한남기독실업인회(CBMC) 1998년도 부회장으로, 탁경준 집사(5교구)는 총무로, 신용식 집사(10교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와 이변생 집사(12교구, 청년부 부감)는 협동총무로, 이찬호 집사(3교구)는 회원분과 위원장으로 이동만 집사(2교구)와 김재술 집사(4교구)는 기도분과와 방문분과 차장으로 각각 파선되었다. 한남기독실업인회는 5년 전 창립되어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설립인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적 국제적 기구로서 이종운 목사가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 ◆ 이성우·홍성혜 성도(3교구 일원다락방) 가정은 13일(토) 득남했다.
-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식사는 민순구 장로·이영희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I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98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3. 환우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